

세계화와 國立公園



글: 박 병 주
 본회사사
 홍익대 명예교수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자연의 보존과 개발에 대한 개념은 세계적으로 보편화 되기에 이르렀다. 20세기에 진행된 산업화는 물질문명을 신장시키는 면에서는 큰 성과를 올렸지만 이로 인한 수질, 공기의 악화 및 환경훼손의 결과는 이를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경제적 비용과 정신적 노력을 후손에게 떠 맡기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국토공간은 무질서한 시가화가 진행되

어 아름다운 전원 풍경이 파괴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배려한 국토계획의 지침을 앞세워야 했다는 후회를 하고 있다.

나라마다 그 나라의 대표적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도입된 국립공원은 그 범역안의 자연환경 파괴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을 첫째 과제로 삼고 있으나,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자원관리, 방문자관리, 서비스관리 등이 매우 낙후되

어 있다.

흔히들 관광 수입의 경제적 기여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정작 관광자원 정비에 소요되는 국가 재정자금의 투하는 뒤로 미루고 있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97년 봄부터 교육부에서는 초등학생의 학부모 동반 1주일 이내의 여행 등 체험교육을 권장하고 있다고 한다. 어린이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일깨워 주는 자연학습은 필수적이며, 그 대상 후보지로는 국립공원이 선호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아직도 우리의 국립공원에는 방문자를 위한 기초 시설, 이를 테면 비지터센터와 같은 시설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쓰레기통, 벤치, 안내판 등 각종 시설물도 각 국립공원의 개성을 도외시한 채 어디나 획일화 되어 있다. 예산 절감을 그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개성과 매력, 정신적 여유를 중시해야 될 국립공원 관리에서마저 이토록 웅색하게 경제 논리가 통용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오늘날은 일상생활 속에서 TV화면을

통해 온세계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양상을 즉각적으로 접할 수 있으며, 인터넷 등 정보매체의 발전은 앞으로 더욱 더 지구촌의 긴밀한 연계를 가속화 시키게 될 것이다. 사람들마다 기회가 된다면 어느 나라 어느 곳에 가보고 싶다'고 하는 보다 분명한 비교판단이 가능해질 것이다.

질서있는 환경,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매력적인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곳, 그러면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곳을 가보고 싶어 할 것이다. 이토록 관광객의 의식 수준이 세계화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국립공원 관리측면에도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